

急驚風の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對한 文獻的 考察

徐珠源·蔡禹錫*

I. 緒論

驚風은 小兒에서 흔히 볼수 있는 疾患으로 이 중에서도 急驚風은 發病이 突發的이고 病勢의 變化가 迅速하며 病情이 危重하고 때로는 生命에도 威脅을 주므로 “小兒之病 最重惟驚”이라 하였다¹⁾.

小兒는 臟腑가 薄弱하고 氣血이 未充하며 神志도 怯弱한데 感受六淫의 外感, 暴受驚恐의 內因 및 乳食積滯의 不內外因 등의 여러가지 原因에 의하여 쉽게 驚風이 發生된다^{2, 3)}.

歷代文獻에 急驚風은 驚癇^{4, 5)}, 驚厥³⁾, 驚搐⁶⁾, 驚候⁷⁾, 發搐⁸⁾의 範疇에 속하여 있는데 宋代 以前의 文獻에서는 그 名稱을 찾아볼 수 없고 癇과 區分 없이 混用되었으며 宋代에 이르러 《太平聖惠方》⁹⁾에 처음으로 急驚風이라는 單一病症으로 分離되어 記錄되어 있으며 北宋의 錢¹⁰⁾은 驚風을 急驚風과 慢驚風으로 分類하였다.

急驚風의 症狀은 暴急하고 突然 高熱이 나고 神志煩急, 大便秘結, 小便赤澀, 痰壅氣促, 牙關緊急 등의 症狀들이 나타나는데 古代 醫家들은 크게 四證(熱, 痰, 風, 驚)과 八候(搐, 搦, 掣, 顛, 反, 引, 竄, 視)로 概括하였다¹¹⁾.

急驚風의 病機는 內有實熱과 外挾風邪로 風火가 相搏하는 것이니 心主火, 肝主風이 根本 病巢가 된다. 즉 心火가 盛하여지면 肝風이 動하게 되며 肝風이 動하면 心火는 더욱 暴甚해져 發泄하지 못하고 急激하게 抽搐이 發하는 陰虛陽盛之證이다^{6, 9, 10)}.

이에 筆者는 小兒疾患 중 臨床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急激한 症狀인 急驚風

*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鍼灸學教室

에 대한 韓方的인 治療 對策 중 鍼灸治療로 높은 治療效果을 얻을 수 있으므로 鍼灸治療의 臨床活用에 도움이 되고자 歷代文獻에 나타난 急驚風의 病因, 病機 및 鍼灸治療를 整理 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資料 및 研究方法

1) 資料

① 病因病機

- | | | |
|-----------------|-------------|-----------|
| (㉠) 黃帝內經素問 奇病論編 | (㉡) 巢氏諸病源候論 | (㉢) 太平聖惠方 |
| (㉣) 小兒藥證直訣 | (㉤) 河間三六書 | (㉥) 醫學綱目 |
| (㉦) 醫學入門 | (㉧) 幼科釋謎 | (㉨) 吳氏兒科學 |
| (㉩) 中醫兒科學 | (㉪) 聖濟總錄 | (㉫) 儒門事親 |
| (㉬) 衛生寶鑑 | (㉭) 東垣十書 | (a) 幼科全書 |
| (b) 東醫寶鑑 | | |

② 鍼灸治療

- | | | |
|--------------|---------------|--------------|
| (㉠) 鍼灸治療百病薈萃 | (㉡) 鍼灸集成 | (㉢) 鍼治宜難奇症案匯 |
| (㉣) 鍼灸配穴辭典 | (㉤) 實用鍼灸學 | (㉥) 簡明中國鍼灸 |
| (㉦) 鍼灸經外奇穴圖譜 | (㉧) 鍼灸大成 | (㉨) 鍼灸資生經 |
| (㉩) 鍼灸聚英 | (㉪) 許任鍼灸經 | (㉫) 中國灸療學 |
| (㉬) 鍼灸學 | (㉭) 精解鍼灸學 | (a) 鍼灸學 |
| (b) 鍼灸學 | (c) 舍巖鍼灸正傳 | (d) 太平聖惠方 |
| (e) 中醫兒科學 | (f) 常見病中醫臨床手冊 | (g) 中國鍼灸治療學 |
| (h) 鍼灸經緯 | | |

2) 研究方法

韓醫學의 歷代文獻 중 <黃帝內經>부터 最近의 文獻을 對象으로 急驚風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를 整理 檢討하였다.

2. 調查內容

1) 病因病機

① 黃帝內經素問 奇病論¹²⁾

帝曰 人生而有病癩疾者 病名曰何? 安所得之? 岐伯曰 病名爲胎病 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 氣上而不下 精氣竝居 故令子發爲癩疾也.

② 巢氏諸病源候論¹³⁾

小兒驚者 由血氣不和 熱實在內 心神不定 所以發驚 變成癇。

③ 太平聖惠方⁹⁾

夫小兒急驚風者 由血氣不和 夙有實熱 爲風邪所乘 干於心絡之所致也。心者 神之所舍 主於血脈。若熱盛則血亂 血亂則氣并於血，氣血相并 又被風邪所搏 故驚而不安也。

④ 小兒藥證直訣¹⁰⁾

因聞大聲或大驚而發搐 發過則如故 此無陰也。小兒急驚者 本因熱生於心 身熱面赤引飲 口中氣熱 大小便黃赤 劇則搐也。蓄熱甚則風生 風屬肝 此陽盛則陰虛也 小兒熱痰客於心胃，因聞大聲非常則動而驚搐矣。若熱劇雖不聞聲乃驚 亦自發搐。

⑤ 河間三六書¹⁴⁾

小兒驚風者 皆由心火暴甚而制金 不能平木故風火相搏而昏冒 驚悸潮熱 此證皆爲熱甚而風生。

⑥ 醫學綱目⁶⁾

急驚屬木火土實 木實則搐而有力 …… 土實則身熱面赤 治宜涼瀉。亦有因驚而發者 以治牙關緊急 壯熱等證 此內有實熱 外挾風邪 當截風定搐。

⑦ 醫學入門¹⁵⁾

神驚 痰聚發風搐 或因內熱 風生肝；小兒元氣未充 神畜未定 或見生人異物或聞厲聲響器，驚入心之胞絡 火炎 舍空而聚痰 痰生熱 擊生風 心肝脾病也。又有心內積熱而驚惕 肝内生風而發搐 痰延壅盛 風熱并作 高以暴熱緊急 心肝病也。蓋心主熱 脾主痰 肝主風 相因而發 謂之驚風痰熱。內外挾驚 成假搐 不比真搐 閉牙關；多是外感風寒 內傷飲食 挾驚而成 謂之假搐 非真搐內生驚癇也。

⑧ 幼科釋謎¹⁾

小兒之病 最重偷驚 驚必發搐 …… 心經積熱 肝部風生 肝風心火 二臟交爭 血亂氣壅 痰延與并 百脈凝滯 關竅不靈 或急或慢 隨其所攫 急由陽盛 慢屬陰凝 急緣實病 慢自虛成。

⑨ 吳氏兒科學²⁾

(㉞) 急驚起源

小兒臟腑薄弱 氣血未充 內因飲食之所傷 外受時邪之所侵 正氣偶衰 邪從虛襲 初由口鼻以潛入 繼由經絡以傳佈 病勢鶴張 熱自內生 熱甚侵肝 肝乘風動於時發爲驚狀 此爲驚風之起因

(㉟) 急驚病理

小兒爲純陽之體 諸邪感受 化熱至速 小兒又多血氣未充 肝虛易爲邪乘準是二因

故急驚之病理 率爲肝乘太過 肺失清降 昔人所爲木旺無制 金氣不伸也 因肝乘之太過 故熱勢上炎。

⑩ 中醫兒科學³⁾

(7) 急驚風

㊸ 外感風寒:風寒之邪 侵襲肌表 初期雖有挾風挾寒之別 但總因邪鬱肌表而致化熱化火 故初爲外感風寒 驚則肝風內動

㊹ 感染溫邪:溫邪最易化熱化火 感染以後 往往導致內陷厥陰 逆傳心包

㊺ 乳食積滯:乳食不節 鬱結腸胃 化熱灼津血不榮筋 導致肝風內動俗稱‘食厥症’

㊻ 暴受驚恐:如乍聞異聲或不慎跌仆等 因突然受到外來的刺激 而致神志不寧 精神失守 出現一時性驚厥。

⑪ 聖濟總錄¹⁶⁾

小兒急驚之象 身體壯熱 痰涎壅滯 四肢拘急筋脈牽掣 項背強直 目睛上視 牙關緊急 謂其發動卒急 故名急驚也 此因心絡受邪所致 蓋心藏神主血 小兒血氣不和 宿有實熱 若爲風邪所乘 則熱盛血亂 血氣相并 則神舍不安 故卒然而驚 故入所謂陽癇者是也。

⑫ 儒門事親¹⁷⁾

風熱 氣血偏勝

⑬ 衛生寶鑑¹⁸⁾

由熱 熱則生風 又或因驚而發

⑭ 東垣十書¹⁹⁾

風木旺也 風木屬肝 肝邪盛 必傳剋於脾 因外物 因氣動

⑮ 幼科全書²⁰⁾

驚者是驚 風者是風 最要分別得明白 不可混治 驚者 因見非常之形 異類之物病因爭斗 或因跌仆 或水火 或禽獸之類 以致驚其神 氣結于心而痰生涎 痰壅氣逆 結成搐搦 風者 或風外感風寒 或因內傷飲食 以致 生于內因熱生痰 因痰生搐

⑯ 東醫寶鑑²¹⁾

因聞大聲 或大驚 內有熱則生風 或因驚而發延潮搐 心受驚 肝主風 蓋有內有實熱 外感風邪 心家受熱而積驚 肝家生風而發搐 肝風心火 二臟交爭 血亂氣并 痰涎壅塞 所以百脈凝滯 開竅不通 風氣審盛 而無所泄 故暴熱也

2) 鍼灸治療

① 太平聖惠方⁹⁾

小兒急驚風 灸前頂一穴, 三壯 在百會前一寸。若不愈 水溝兩眉頭及鼻下人中一穴

炷如小麥大.

② 鍼灸資生經²²⁾

小兒急驚風灸前庭三壯. 若不愈須灸兩眉頭及人中穴.

③ 鍼灸聚英²³⁾

驚風腕骨最爲眞. 瘦癢五指掣陽谷兼治腕骨與崑崙. 角弓反張百會穴.

④ 鍼灸大成²⁴⁾

驚風:腕骨. 角弓反張:百會. 瘦癢, 五指掣:陽谷 腕骨 崑崙. 搖頭張口, 反折:金門

⑤ 鍼灸經緯²⁵⁾

小兒驚風少商, 水溝, 湧泉

⑥ 鍼灸集成²⁶⁾

急慢驚灸印當. 急慢驚風危極不可灸者先當兩乳頭黑肉上男左女右灸二壯. 次灸髮際眉心百會各一壯.

⑦ 鍼灸治療百病薈萃²⁷⁾

急驚風:以開竅風熱, 定驚熄風爲主. 主穴:十宣, 印當, 人中, 曲池, 太冲, 均用瀉法. 配穴:昏厥不醒加勞宮, 湧泉; 抽搐不止加行間, 陽陵泉, 崑崙, 後谿; 高燒不退加大椎(點刺放血), 合谷.

⑧ 鍼治宜難奇症案匯²⁸⁾

治法:解暑清熱, 鎮驚醒神. 處方:人中, 十宣, 合谷. 操作:鍼利用瀉法, 小兒即*醒大哭, 抽搐立止, 諸症解除.

⑨ 鍼灸配穴辭典²⁹⁾

(㉑) 南京: 治法:督脈·手陽明大腸經을 主로 하며 足厥陰肝經도 使用한다. 配穴:主穴-水溝, 大椎, 合谷, 十宣, 陽陵泉, 太冲. 加減法-退熱:曲池. 降火:湧泉. 泄熱鎮驚:印當. 降濁化痰:豐隆. 方法:鍼으로 淺刺即拔 瀉法. 或은 三稜鍼으로 瀉血. 灸不用.

(㉒) 實用

配穴:主穴-印當, 人中, 合谷, 太冲. 加減穴-高熱:十宣(瀉血). 方法:모두 淺刺, 捻轉補瀉의 瀉法. 置鍼 留음.

(㉓) 簡編

治法:清熱開竅, 除痰熄風鎮驚. 配穴:百會, 印當, 人中, 十宣(瀉血), 合谷, 外關, 內關, 陽陵泉, 太冲.

⑩ 實用鍼灸學³⁰⁾

(㉑) 十宣, 湧泉, 合谷.

(㉒) 人中, 大椎, 曲池, 中冲.

如高熱不退加外關，委中，抽筋加陽陵泉，行間，如牙關咬緊加承漿，頰車。(如角弓反肝者加刺督脈單穴即效.)

⑪ 簡明中國鍼灸³¹⁾

(㉞) 治法：急驚風宜開竅，清熱，熄風

(㉟) 處方：印當，水溝，太冲并隨證配伍。

(㊱) 方義：急驚風印當定驚安神，水溝醒腦開竅；太冲平肝熄風。熱邪盛配大椎，曲池，十二井穴泄熱；痰熱重配中脘，豐隆，合谷調整脾胃，清熱化痰；驚恐者配四神總，勞宮，湧泉寧心定志，鎮驚止癇。

⑫ 鍼灸經外奇穴圖譜³²⁾

小兒風病大動：手足十指(趾)端。痙攣：燕口 臍中四邊 脊配五穴。搐搦：足心前後隱珠 里內庭。驚風：風關 內至陰。急慢驚風：印當 一窩風 精靈威靈

⑬ 許任鍼灸經³³⁾

驚風：神道 在第五椎節間 灸七壯至百壯 即效 又危急難救 灸兩乳頭三壯 男左女右。睡驚手掣 目不合：手大指 次指端 各三壯 間史 合谷 太冲 太淵

⑭ 中國灸療學³⁴⁾

治則：真驚熄風。取穴：神闕，太冲，湧泉。配穴：發熱加曲池，大椎；體弱加足三里。灸法：神闕用艾炷灸，每次 3-5壯，餘穴可用艾條顯灸，10日為1程。

⑮ 精解鍼灸學³⁵⁾

小兒가 手足搐搦時에는 시끄럽게 하지 말며 安靜을 시켜 놓은 뒤에 治療를 하는 것이 좋다. 공연히 搐搦을 못하도록 防止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鎮驚시키주기 위하여 百會 印當 水溝 承漿을 刺鍼하고 十宣穴에서 出血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一說에는 急慢驚風을 막론하고 前頂에 灸 3壯하여 不愈하면 다음에는 攢竹 人中 灸 3壯하라 하였다. 그러나 前者의 治療를 하면 거의가 恢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其外 曲池 大椎 中脘 委中도 應用한다.

⑯ 鍼灸學³⁶⁾

百會，印當，水溝，承漿을 刺하여 鎮靜鎮驚，十宣穴出血 前頂 灸3壯하여 不愈하면 攢竹，水溝，灸3壯，曲池，大椎，湧泉，中脘，委中을 刺한다. 驚風-腕骨. 角弓反張-百會. 急慢驚-灸印當. 急慢驚風危極不可灸者-先當兩乳頭 黑肉上 男左女右灸3壯，次灸髮際眉心額會 各3壯. 搖頭張口反折-金門. 口噤不開-頰車，下關. 手足搐搦-太冲，行間

⑰ 鍼灸學³⁷⁾

治則：開竅熄風，除痰定驚。治法：取督脈，足厥陰經穴位為主。鍼刺用瀉法，或三棱鍼點刺出血。處方：水溝，大椎，合谷，太冲，十宣，陽陵泉。外感：配曲池；痰

熱：配中脘，豐隆，神門；驚恐：配印當，神門，湧泉。方義：水溝通于督脈，開竅醒神；大椎爲諸陽之會，可清瀉邪熱；配肝經原穴太沖，可清瀉肝火，熄肝風；合谷加強諸穴之力；十宣點刺出血，以助水溝醒腦豁厥之功；陽陵泉屬足少陽，又爲筋會，可舒筋止痙。曲池爲手陽明經合穴，故外感者配之以加強清熱祛邪之功；中脘，豐隆清火熱痰，行氣得滯，故痰熱者選之豁痰開竅，再合心經原穴鎮驚寧心；驚恐者配腎經井穴湧泉，及印當，神門，鎮靜安神，熄風止痙。隨證配穴：目上視者加神庭，筋縮；驚風不止者加顛會，顛息。其他療法：㉗耳鍼：配穴：交感，神門，腦點，心，皮質下。方法：強刺激。每隔 10 分鐘捻轉一次，可留鍼 60 分鐘。㉘毫鍼及刺血療法：取穴：十宣，人中，合谷，太沖。方法：點刺十宣，人中。鍼刺合谷，太沖，捻搗片刻，出鍼，然後用手擠捏出血。

⑱ 鍼灸學³⁸⁾

(㉗) 鍼刺療法：施治原則-疎調督脈爲主，有熱者佐以清熱，無熱者佐以鎮痙。發熱驚厥-常用穴：印當，太陽，四縫，十宣(俱出血)，大椎，身柱，曲池，合谷。備用穴：勞宮，外關，湧泉。無熱驚厥-常用穴：大椎，筋縮，後谿，陽陵泉。備用穴：身柱，合谷，安眠，太沖，人中。方法：先取常用穴，效不濕著時加備用穴，一般用強刺激。

(㉘) 耳鍼療法：常用穴：皮質下，枕，心，肝，神門。高熱者在耳尖部出血。

⑲ 舍巖鍼灸正傳³⁹⁾

治法：少商，上星，人中瀉。又方：合谷，太沖瀉。

⑳ 中醫兒科學¹⁰⁾

(㉗) 鍼刺：驚厥取人中 合谷 內關 太沖 湧泉 百會 印當 高熱取穴 曲池 大椎 十宣放血 牙關緊閉取穴 下關 頰車 十宣放血

(㉘) 耳鍼：神門 皮質下 強刺激

(㉙) 指鍼：神昏竅閉牙關緊急者用指甲陷合谷虎口穴

㉑ 中國鍼灸治療學⁴⁰⁾

(㉗) 裏熱內熾，熱盛動風：治則：清瀉裏熱，平肝熄風。處方：十二井，太沖，曲池，大椎。操作：十二井點刺出血，大椎，太沖施以強刺激瀉法，不留鍼。方義：本型屬陽明內熱熾盛，搖動肝風。取十二井穴點刺出血以退熱鎮痙安神，配瀉曲池，大椎以清瀉內熱，取足厥陰經之太沖以平肝息風。

(㉘) 邪陷心包，肝風內動：治則：清營開竅，鎮肝熄風。處方：人中，十宣，太沖，勞宮。加減：高熱不退，加委中，曲澤。操作法：十宣，委中，曲澤點刺出血，人中鍼尖向上斜刺施以捻轉瀉法，強刺激；太沖，勞宮施以瀉法，不留鍼。方義：本型屬暑熱內陷心包，肝風內動之證。取十宣，人中瀉之以祛暑清熱，開竅鎮驚；配瀉手厥陰經之勞宮以清心開竅，瀉太沖以平肝熄風；瀉委中，曲澤以清瀉暑熱。

(㉞) 乳食停滯, 心肝蓄熱 : 治則:消食導滯, 鎮肝安神. 處方:印當, 足三里, 四縫 神門. 操作法:四縫點刺擠出少許液體; 印當, 行間, 足三里均行瀉法, 不留鍼. 每日1次. 方義:本型屬氣機逆亂, 肝失調達, 或因暑受驚恐, 內擾心神所致. 印當位居督脈, 瀉之以醒腦鎮驚; 配瀉行間以鎮肝熄風, 瀉足三里, 四縫以消食導滯, 瀉神門以安神鎮驚.

㉟ 常見病中醫臨床手冊⁴¹⁾

體鍼 : 合谷(可透後谿) 太冲(可透湧泉) 腰俞. 發熱加 大椎 曲池 不發熱 加人中 中衝 崑崙. 耳鍼 : 交感 神門 皮質下 腰點 心 重證用強刺激加留鍼

III. 總括 및 考察

急驚風은 神經系의 一時的인 機能紊亂現象으로 普通 1歲에서 4歲 사이의 小兒에게 많이 나타나고 年齡이 낮을수록 患病率이 높으며, 여러가지 原因으로 인해 일어나는데 臨床上 抽搐을 發하는 것 중에서 陽熱實에 屬하는 것을 모두 包含한다^{3, 11, 36)}.

急驚風은 驚癇^{4, 5)}, 驚厥³⁾, 驚搐⁶⁾, 驚候⁷⁾, 發搐⁸⁾의 範疇에 屬해 있으며 宋代 以前의 文獻에서는 그 名稱을 찾아볼 수 없는데 《內經·素問》¹²⁾ <奇病論編>에 “帝曰 人生而有病癲疾者 病名曰何? 安所得之? 岐伯曰 病名爲胎病 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 氣上而不下 精氣竝居 故令子發爲癲疾也.”라 하여 癲疾과 區別되지 않았고, 巢¹³⁾는 驚과 癇을 發作的 程度로 標示하였고, 唐代 《千金要方》 등^{4, 5)}에서는 癇症과 區分없이 混用하여 驚癇, 風癇, 食癇으로 命名했다. 宋代에 이르러 《太平聖惠方》⁹⁾에 처음으로 急驚風이라고 記錄되었으며, 北宋 때 錢¹⁰⁾은 驚風을 病名으로 確立하여 急驚風과 慢驚風으로 分類하였고, 《聖濟總錄》¹⁶⁾에서는 陽癇에 該當된다고 하였다.

急驚風의 病因病機를 살펴보면 巢¹³⁾는 血氣不和 熱實在內하여 驚이 發하게 되며 甚하면 痙攣이 오고 癇으로 變하게 된다 하였으며, 陳⁹⁾은 小兒가 氣血不和하고 內에 實熱이 있는데 風邪가 外部로 侵入하여 心絡에 影響을 주어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錢¹⁰⁾은 大聲을 듣거나 놀라게 되면 心熱이 生하며 熱이 盛하면 生風하여 急驚風이 發한다고 하였으며, 劉¹⁴⁾는 驚風을 六氣와 連結시켜 少陰君火의 熱證과 厥陰風木의 風證에 該當된다고 하였으며, 心火가 暴甚하여 制金不能平木하여 風火가 相搏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다. 張¹⁷⁾은 風熱 및 氣血이 偏乘하여 發生한다고 하였고, 羅¹⁸⁾는 錢¹⁰⁾의 說을 引用하였으며, 廖¹⁹⁾는 肝邪가 盛하여 脾胃를 克하여 發生한다고 하였고, 朱²⁰⁾는 外感風寒 및 內傷飲食으로 內에 熱이 生하여 痰

이 生하고 痰으로 인해 搐이 發한다고 하였다. 李¹⁵⁾는 朱²⁰⁾의 說을 引用한 外에도 四時感冒, 瘟疫, 濕痰邪熱로 인하여 或은 氣鬱로 인한 痰으로 急驚風이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吳²⁾는 小兒 臟腑薄弱하고 氣血이 未充하여 內로는 飲食傷과 外로 時邪之所侵으로 正虛한 틈을 타고 口鼻로 邪가 入하여 熱이 內에서 生하고, 熱이 甚하면 肝乘風動하여 驚風이 發한다고 하였다. 上海³⁾에서는 外感風寒과 感染, 溫邪를 들었으며, 乳食積滯하여 痰濕이 內聚하여 鬱而生熱 久而化火하여 肝風內動하고 또 暴受驚恐하여 發한다고 하였다. 氣機가 逆亂하여 痰을 生하고, 痰이 驚을 生하여 發搐하거나, 痰이 熱을 生하여 風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綜合해 보면 急驚風은 內傷, 外感, 驚恐邪氣에 의해 熱이 發生하여 熱盛生風, 風盛生痰, 痰盛生驚하여 發生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治法은 淸熱熄風을 爲主로 하되 鎮驚通竅시키고 外邪는 兼用 疏解, 食滯는 兼用 消導하며, 急則治標하는 方法으로 痰火가 稍退하면 血氣를 調해야 한다.

鍼灸治療面을 살펴보면 灸法으로 陳 등^{9, 22)}은 督脈의 前頂과 水溝를 用하여 通調督脈하고 開竅醒神하여 治하였으며, 李²⁶⁾는 灸法으로 急驚風에 奇穴인 印堂을 用하여 定驚安神시켜 治하였고, 그 外에도 乳中 百會를 用하여 治하였다. 許³³⁾는 神道에 七壯에서 百壯을 灸하면 卽效한다 하였고, 急救時는 乳中을 用하였다. 章³⁴⁾은 鎮驚熄風 시키는 神闕 太衝 湧泉을 用하여 鍼法과 灸法을 并用하였다. 崔^{35, 36)}는 鎮驚 시켜주기 위해 百會 印堂 水溝 承漿에 刺鍼하고 十宣에서 放血하였으며, 急慢驚風을 莫論하고 前頂에 灸三壯하여 不愈하면 다음에 攢竹 水溝에 灸三壯하라 하였다. 楊 등^{27, 28, 30)}은 水溝 十宣 合谷을 多用하였으며, 張³¹⁾은 開竅 淸熱 熄風의 治法으로 定驚安神시키는 印堂, 醒腦開竅시키는 水溝, 平肝熄風 시키는 太衝을 用하였고, 郝³²⁾은 急慢驚風에 印堂으로 治하여 奇穴으로써 定驚安神作用으로 多用되었다.

金²⁹⁾은 《南京》에서 治法으로 督脈, 手陽明大腸經을 主로 하며 足厥陰肝經도 使用한다 하여, 督脈의 水溝 大椎, 手陽明大腸經의 合谷 曲池, 足厥陰肝經의 太衝을 用하였다. 특히 “灸不用”이라 하여 陳 등^{9, 22, 26)}이 灸法으로 治療한 것과는 對照를 보이고 있다.

黃 등^{3, 29, 39, 41)}은 合谷 太衝을 多用하였는데 合谷은 手陽明大腸經의 經穴로 調整脾胃하고 淸熱化痰하며 太衝은 足厥陰肝經의 原穴로 瀉肝火하고 平肝熄風하여 主로 配를 이루어 多用되었다.

楊³⁷⁾은 開竅熄風, 除痰定驚의 治法으로 督脈과 足厥陰肝經穴을 爲主로 水溝 大椎 合谷 太衝 十宣 陽陵泉 등을 使用하였다. 또 原因에 따라 外感에는 曲池를 加하고 痰熱에는 中脘 豐隆 神門을 加하고, 驚恐에는 印堂 神門 湧泉을 加하여 治하였다.

《上海》³⁸⁾에서는 疏調督脈 爲主로 有熱者는 佐以清熱하고 無熱者는 佐以鎮痙하는 原則下에 發熱驚厥과 無熱驚厥로 나누었으며 또 各各에 常用穴과 備用穴을 두어 먼저 常用穴 刺鍼하여 效果가 없으면 備用穴을 加하여 治하였다.

邱⁴⁰⁾는 原因別로 세가지로 區分하여 治療하였는데, 첫째는 裏熱內熾 熱盛動風으로 清瀉裏熱하고 平肝熄風하는 十二井 太衝 曲池 大椎를 用하였고, 둘째는 邪陷心包, 肝風內動으로 清榮開竅하고 鎮肝熄風하는 水溝 十宣 太衝 勞宮을 用하였으며, 셋째는 乳食停滯 心肝蓄熱로 消食導滯, 鎮肝安神하는 印堂 足三里 四縫 神門을 用하였다.

또한 高熱에 《上海》 등^{3, 31, 34, 41)}은 大椎 曲池를 多用하였고 楊²⁷⁾은 大椎 合谷을, 金²⁹⁾은 曲池 十宣을, 唐³⁰⁾은 外關 委中을 加하여 治하는데 主로 瀉血로써 清熱시켰다.

急驚風에 使用된 穴은 45穴이며 經絡別로는 手太陰肺經에 少商 太淵 2穴, 手陽明大腸經에 曲池 合谷 2穴, 足陽明胃經에 乳中 足三里 豐隆 下關 頰車 5穴, 手少陰心經에 神門 1穴, 手太陽小腸經에 腕骨 後谿 陽谷 3穴, 足太陽膀胱經에 崑崙 委中 金門 攢竹 4穴, 足少陰腎經에 湧泉 1穴, 手厥陰心包經에 間使 曲澤 內關 勞宮 中衝 5穴, 手少陽三焦經에 顛息 外關 2穴, 足少陽膽經에 陽陵泉 1穴, 足厥陰肝經에 太衝 行間 2穴, 任脈에 承漿 神闕 中脘 3穴, 督脈에 水溝 大椎 百會 前頂 筋縮 神庭 身柱 上星 神道 顛會 腰俞等 11穴, 奇穴에 四縫 十宣 印堂 3穴이 使用되어(表 1), 急驚風에 많이 應用된 經絡은 督脈26.2%, 足陽明胃經 및 手厥陰心包經 11.9%, 足太陽膀胱經 9.5%, 任脈 및 手太陽小腸經 7.2%, 手太陰肺經 手陽明大腸經 手少陽三焦經 足厥陰肝經 4.8%, 手少陰心經 足少陰腎經 足少陽膽經 2.3%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頻度數로 본 經穴別 分布는 督脈 31%, 手陽明大腸經 14.5%, 足厥陰肝經 11.2%, 足陽明胃經 足太陽膀胱經 足少陰腎經 6.4%, 手太陽小腸經 手厥陰心包經 5.4%, 任脈 4.8%, 足少陽膽經 3.2%, 手少陽三焦經 2.1%, 手太陰肺經 手少陰心經 1.6%의 順으로 나타났다(表 2).

部位別 鍼灸治療穴은 上肢에 少商 太淵 曲池 合谷 間使 曲澤 內關 勞宮 中衝 外關 神門 腕骨 陽谷 後谿 十宣 등 14穴이 使用되었고, 頭部에 下關 頰車 攢竹 顛息 承漿 百會 上星 水溝 神庭 顛會 前頂 印堂 등 12穴, 下肢에 足三里 豐隆 崑崙 金門 委中 湧泉 陽陵泉 太衝 行間 등 9穴, 腰背部에 筋縮 大椎 神道 身柱 腰俞 등 5穴, 胸腹部에 乳中 神闕 中脘 등 3穴이 使用되어 上肢가 34.1%, 頭部가 27.3%, 下肢가 20.4%, 腰背部가 11.4%, 胸腹部가 6.8%의 順으로 多用되었다(表 3).

多用된 穴로는 水溝 21回, 太衝 18回, 十宣 16回, 合谷 15回, 印堂 14回, 大椎 13回, 曲池 湧泉 12回的 順으로 多用되어 督脈의 經穴로 通調督脈 開竅醒神하는

水溝가 가장 많이 言及되었고, 足厥陰肝經의 原穴로 瀉肝火하고 平肝熄風하는 太衝과 淸熱시키고 醒腦시키는 十宣을 使用하여 急驚風の 原因이 되는 風과 火를 治療하는 穴로 多用되었으며, 手陽明大腸經의 合谷은 調整脾胃하고 淸熱化痰하며, 手陽明大腸經의 合穴인 曲池의 外感熱을 淸熱祛邪시키는 作用과 더불어 督脈의 大椎도 諸陽之會로서 瀉邪熱作用으로 多用되었고, 暴受驚恐에 足少陰腎經의 井穴인 湧泉과 더불어 印堂을 用하여 醒腦鎮驚하고 熄風止痙하는 治穴로서 多用된 것으로 思慮된다(표 4).

(표1) 經絡別 經穴 및 頻度

經絡	鍼灸治療
手太陰肺經	少商2, 太淵1
手陽明大腸經	曲池12, 合谷15
足陽明胃經	乳中(2), 足三里2, 豐隆3, 下關2, 頰車3
足太陰脾經	無
足太陽膀胱經	崑崙4, 金門2, 委中4, 攢竹(2)
足少陰腎經	湧泉11(1)
手厥陰心包經	間使1, 曲澤1, 內關2, 勞宮4, 中衝2
手少陽三焦經	顛息1, 外關3
足少陽膽經	陽陵泉6
足厥陰肝經	太衝17(1), 行間3
手少陰心經	神門3
手太陽小腸經	腕骨5, 陽谷2, 後谿3
任脈	承漿3, 神闕1(1), 中脘4
督脈	筋縮2, 大椎13, 百會7(1), 上星1, 水溝17(4), 神道(1), 神庭2, 身柱2, 顛會1, 腰俞1, 前頂(4)

註) 經穴 鍼治療數(灸治療數)

(奇穴 四縫2, 十宣16, 印堂12(2))

(表2) 經絡別 經穴數 및 頻度數의 百分率

經絡	經穴數	%	頻度數	%
手太陰肺經	2	4.8	3	1.6
手陽明大腸經	2	4.8	27	14.5
足陽明胃經	5	11.9	12	6.4
足太陰脾經	0	0	0	
手少陰心經	1	2.3	3	1.6
手太陽小腸經	3	7.2	10	5.4
足太陽膀胱經	4	9.5	12	6.4
足少陰腎經	1	2.3	12	6.4

經絡	經穴數	%	頻度數	%
手厥陰心包經	5	11.9	10	5.4
手少陽三焦經	2	4.8	4	2.1
足少陽膽經	1	2.3	6	3.2
足厥陰肝經	2	4.8	21	11.2
任脈	3	7.2	9	4.8
督脈	11	26.2	58	31
計	42	100	187	100
奇穴	3		32	

(丑3) 部位別 經穴數

	頭部	上肢	下肢	胸腹	腰背
1	下關	少商	足三里	乳中	筋縮
2	頰車	太淵	豐隆	神闕	大椎
3	攢竹	曲池	崑崙	中脘	神道
4	顛息	合谷	金門		身柱
5	承漿	間使	委中		腰俞
6	百會	曲澤	湧泉		
7	上星	內關	陽陵泉		
8	水溝	勞宮	太衝		
9	神庭	中衝	行間		
10	顛會	外關			
11	前頂	神門			
12	印堂	腕骨			
13		陽谷			
14		後谿			
15		十宣			
%	27.3	34.1	20.4	6.8	11.4

(丑4) 頻度別 鍼灸治療穴

使用回數	經 穴
15回 以上	合谷15,太衝18,水溝21,十宣16
10回 以上	曲池12,湧泉12,大椎13,印堂14
5回 以上	陽陵泉6,腕骨5,百會8
5回 未滿	少商2,太淵1,乳中2,足三里2,豐隆3,下關2,頰車3,崑崙4,金門2,委中4,攢竹2,間使1,曲澤1,內關2,勞宮4,中衝2,顛息1,外關3,行間3,神門3,陽谷2,後谿3,承漿3,神闕2,中脘4,筋縮2,上星1,神道1,神庭2,身柱2,顛會6,腰俞1,前頂4

IV. 結 論

急驚風の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對한 文獻의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急驚風の病因은 外因으로는 感受六淫, 內因으로는 暴受驚恐, 不內外因으로는 乳食積滯 등이다.
2. 臟腑와의 關係는 肝 心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3. 急驚風の 鍼灸治療에서 多用된 經絡은 督脈, 足陽明胃經, 手厥陰心包經, 足太陽膀胱經, 任脈, 手太陽小腸經의 順으로 나타났다.
4. 治療穴이 多用된 頻度數에 따른 經絡分布는 督脈, 手陽明大腸經, 足厥陰肝經의 順으로 나타났다.
5. 治療穴의 部位別 分布는 上肢, 頭部, 下肢, 腰背 順으로 나타났다.
6. 經穴의 使用 頻度는 水溝, 太衝, 合谷, 大椎, 曲池, 湧泉 順으로 나타났으며, 奇穴로 十宣, 印堂이 多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沈金鰲: 幼科釋謎, 香港, 萬葉出版社, pp.15-16.
2. 吳克潛: 吳氏兒科學, 臺北市, 新文豐出版公司, pp.266-268.
3.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兒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140-149.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77-82, 543.
5. 王燾: 外臺秘要 下冊,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pp.961-986.
6. 樓全善: 醫學綱目, 臺南, 臺南北一出版社, 1973, pp.20-44.
7. 危亦林: 世醫得效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375-376.
8. 不著撰者: 小兒衛生總微論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92-93.
9. 陳昭遇外: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79, p.2694, 2708.
10. 錢乙: 小兒藥證直訣, 宇宙醫學出版社, 1962, pp.27-28.
11. 丁圭萬: 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1985, pp.177-190, 460-465.
1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177.
13.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臺中市, 昭人出版社, pp.8-9.
14. 劉河間: 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p.234-237.

15. 李槿: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481.
16. 正和奉勅: 聖濟總錄, 北京, 人民出版社, 1977, pp.2747-2763.
17. 張子和: 儒門事親, 臺北, 旋風出版社, 1978, (卷六) p.6.
18. 羅天益: 衛生寶鑑,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325.
19. 李杲: 東垣十書(醫部全錄 卷10), 서울, 成輔社, 1983, pp.569-570.
20. 朱震亨: 幼科全書(醫部全錄 卷10), 서울, 成輔社, 1983, pp.570-571.
21.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6, p.637.
22. 王執中: 鍼灸資生經, 臺北, 旋風出版社, 1973, p.20.
23. 高武: 鍼灸聚英, 서울, 東南出版社, 1983, pp.288-289.
2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p.420-421.
25. 楊維傑: 鍼灸經緯, 臺北, 樂群出版社業有限公司, 1975, P. 395.
26. 李經緯 외: 鍼灸集成, 北京, 中國書館, 1986, p.122.
27. 楊光云: 鍼灸治療百病薈萃, 盛都, 四川科學記述出版社, 1989, p.191.
28. 俞昌德 외: 鍼治宜難奇症案匯,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54-155.
29. 金庚植 외: 鍼灸配穴辭典, 서울, 一中社, 1991, pp.253-255.
30. 唐明山: 實用鍼灸學, 臺北, 旋風出版社, 1973, P.222.
31. 張 銘: 簡明中國鍼灸, 上海, 同濟大學出版社, 1989, p.230.
32. 郝金凱: 鍼灸經外奇穴圖譜, 陝西, 陝西人民出版社, 1982, p.456.
33. 許任 : 許任鍼灸經,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77, p.228.
34. 章逢潤 외: 中醫灸療學, 臺北, 人民衛生出版社, 1981, p.442.
35. 崔容泰 외: 精解鍼灸學, 서울, 杏林書院, p.874.
36. 崔容泰 외: 鍼灸學, 서울, 集文堂, 1988, pp.1353-1354.
37. 楊甲三 외: 鍼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688-689, 874.
38. 上海中醫學院: 鍼灸學, 香港, 中國圖書刊行社, 1985, p.424.
39. 黃廷學: 舍岩鍼灸正傳, 大邱市, 先驅出版社, 1981, p.289.
40. 邱茂良 외: 中國鍼灸治療學,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8, p. 520-521.
41. 江邊新醫學院第1附屬醫院 編: 常見病中醫臨床手冊, 北京, 衛生出版社, 1979, pp.88-90.